

## 출범 임박 이낙연 신당, ‘배신자 프레임’에 발목 잡히나

문재인 “김대중, 야권 통합해 정권교체 당부”...이낙연 신당 반대 친명계, 피습 이후 “당대표 중심 뭉쳐”...야권 분열은 패배” 압박 지도부 “지금 시점 야권 분열은 김대중·민주당 정신 벗어난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배신자 프레임’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통합정신을 강조하며 신당 창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에서도 야권 분열은 DJ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야권 분열의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점이 부각돼 신당의 위상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다음주 중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피습한 상황인데다 신당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이 분명해 이 전 대표의 결정은 지지층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보다 위상이 크게 떨어져 별다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 관계 위기 등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 당부는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김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됐다”며 “그 유지에 따른 야권 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되었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을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이낙연 신당이 야권 분열로 이어져 총선 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피습 이후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당내 반응도 이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권 통합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야권 분열은 김대중·민주당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을 철회하라는 당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향해 탈당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문제와 별개로 우리 당으로서의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총선 준비도 모두 정지되는 위기를 맞게 됐다”며 “위기일수록 단합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창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며 “방향도 잘못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창당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호소한다”고 했다.

당내 거센 반대 여론에도 이 전 대표는 예정대로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피습에도 몰말에서는 신당 실무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전 대표가 뱀은 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자신의 앞선 말들이 회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내 무명열사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당을 떠나기 앞서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창당과 관련한 향후 진로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당 창당 선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홍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회복 속도와 비명계 결사체 ‘원칙과상식’ 탈당 선언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욱·

조용천 의원도 다음주 중 최후통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음주 중 이 전 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창당 선언은 당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 광주 공공미술관 대나무숲 죽순 무단 채취 ‘골치'

광주 시립미술관이 미술관 인근 대나무숲에서 일어나는 죽순 무단 채취로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광주 하정용미술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관 뒤편에 위치한 서구 농성동 상록근린공원 대나무숲에서 죽순 100여 주 중 절반이 무단 채취됐다.

무단 채취는 해마다 죽순이 자라나는 4~5월에 반복되고 있다. 대나무 300여주는 미술관이 전남도지사 공관으로 사용된 지난 1980년대부터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은 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난 2008년 미술관으로 바뀌고, 대나무숲 일대에는 상

록근린공원이 들어섰다. 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나무숲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도 제거됐다.

공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미술관 측은 주민들이 대나무숲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른바 ‘죽순 도둑’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나무를 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채취가 이른 새벽이나 밤에 일어난다고 있어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술관 측은 무단 채취를 막기 위해 숲 일대에 출입 제한 띠를 두르고 죽순 채취 금지



5일 오후 광주 서구 하정용미술관 인근 대나무숲에 죽순 무단 채취 문구가 붙어 있다.

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붙였다.

광주 하정용미술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단호한 행정 처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시로 순찰하면서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며 “공원 미관을 위해 죽순 채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면기자

### ‘초1 자녀 부모 10시 출근’ 사업장...광주시, 장려금 지원

광주시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초등입학기 오전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장을 1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려금 지원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3월부터 7월까지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출근시간을 늦추는 사업장에 1시간 가량의 손실분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건수는 지난해 125건에서 올해 150건으로 확대됐다. 지원금도 2개월 69만원에서 74만8000원으로 늘었다.

학부모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아이도 광주시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신청은 부모 모두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도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업종별 새벽필수업무, 교대근무자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사와 협의해 오후 5시 조기 퇴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74만8000원을 받게 된다.

희망기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이슬비기자



##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